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년 더 받는다

정부, 임대료 낮춘 임대인 금융 지원 확대 등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광주 중대형 상가 3분기 공실률 14.8%... 금남로·충장로 21.8% 달해

정부가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는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문턱도 낮춰주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인구가 줄면서 광주 지역 주요 상가 10곳 중 2곳이 ‘공실’로 비어버리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소상공인들도 정부의 이번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밖에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임대료를 인소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소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인소한 임대인들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민간 금융회사들 역시 이들을 우대하는 금융상

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임대료를 인소한 임대인에 대한 전기 안전 점검도 무상으로 해준다. 대기업이 임대료를 인소한 경우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착한 임대인 지원에 나선다.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하고 이들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처럼 정부의 세제 지원 정책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광주 지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 초과) 공실률은 14.8%로 나타났다. 이는 올 1분기 13.7%에서 2분기 14.5% 등 3분기 연속 공실률이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광주지역 주요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충장로의 경우 공실률이 21.8%

에 달해 10곳 중 2곳 이상이 비어있는 상태.

또 코로나19로 등교가 미뤄지면서 북구 전남대 일대 공실률은 23.9%를 기록했고, 지역 최대 상권이라 불리는 서구 상무지구 역시 19.0%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올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어쩔 수 없는 휴업을 택했고, 도저히 버티지 못해 문을 닫는 등 결국 폐업을 택한 자영업자들이 많았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지원 강화, 공공부문 직접 임대료 인하, 지자체별 임대료 인하 지원방안 마련 유도 등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 정책은 기존 정책보다 한 발 더 진전된 안”이라며 “이를 계기로 민간 영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경감에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외지 투기세력 몰려 상승폭 커지는 광주 집값

11월 둘째 주 0.08%·전세 0.12% ↑

비규제지역으로 외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광주지역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값도 뛰는 등 전세 물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난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한국감정원은 11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21% 상승해 지난주(0.17%)보다 오름 폭이 커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 상승률은 올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넷째 주(0.22%)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도 지난 주 0.29% 오른 데 이어 이번주 0.39% 상승하며 역대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광주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0.08% 올라 전주(0.0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덩달아 전세가격도 뛰면서 이달 둘째 주 광주 전세가격은 0.12% 상승했다.

수원지구 내 정주여건이 양호한 장덕동 위주로 광산구는 0.17%가 올랐고, 동구는 소태·월남동 등 역세권 인근 지역 위주로 0.16%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 역시 봉선동을 위주로 매매가격과 함께 전세값이 0.13% 오르는 등 동반상승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 및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주요 지역,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가볍고 따뜻하게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니트 전문 브랜드 ‘유닛’ 매장에서 캐시미어 소재 100% 니트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연말까지 두 개를 사면 한 개를 50% 할인하는 ‘유닛캐시미어페어’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늘린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 요건 140%까지

내년부터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과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이다. 다만 저소득층을 배려

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천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와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때에만 해당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천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롯데백, 겨울 정기 세일 ‘대한민국 패션 페스타’ 연다

29일까지 빈폴·잇미샤 등 동참 브랜드별 10~20% 할인 등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대한민국 패션 페스타’를 주제로 겨울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겨울 정기 할인행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할인전은 코로나19로 판매 부진을 겪은 국내 패션업계와 연계해 열린다.

오는 15일까지 나흘 동안에는 대한민국 대표 패션그룹들의 ‘패션위크’가 진행된다.

‘한섬’의 타임, 마인, 시스템, 오브제 등이 참여하며 ‘삼성물산’의 구호, 빈폴이 13일-15일 합류한다.

‘바바패션’의 지고트, 아이잡바바와 ‘시선인터내셔널’의 미샤, 잇미샤도 동참하며 브랜드별 10~20% 할인 및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세일 기간 동안에는 짧은 패딩상의와 코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려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과 협업한 단독 ‘숏패딩’을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행사 중에는 ‘국민 아우터를 뽑아라’ 투표 행사를 열어 참여고객 10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 상품권을 준다.

나년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패션업계 지원을 위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이어 할인행사와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에 성원엔지니어링 고성수 대표이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제12대 회장에 고성수(61·사진) ㈜성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12일 ‘2020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를 열고 제12대 회장에 고 대표를 선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장흥 출신인 고 당선인은 1995년부터 ㈜성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서 금속구조물장호순실공사업 운영분과위원장(10~12대), 운영위원(10~11대)을 역임했다. 이밖에 중앙회에서 TF위원회 위원과 건설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 신임 회장은 “회원사들의 수익률 극대와 일감 창출, 화합과 공동체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임기 동안 회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에 전호진 ㈜삼이공사 대표, 정희종 대한건설(주) 대표를 선출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